

명품 멜론으로 과일시장에 활기

도쿄지사

브랜드 조사결과 바이어로부터 최고점 받은 아르스 멜론

- 고가에 판매되는 ‘황제 과일’이 많은 일본에서는 특정 과일이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져 선물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다. 특히, 멜론은 과육이 달고 부드러워 일본의 대표적 여름 과일로 꼽히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 일본 MJ신문사가 실시한 일본 내 멜론 브랜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최고의 명품 멜론은 ‘아르스 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이나 슈퍼의 청과 구매담당 바이어를 대상으로 멜론의 맛, 외형, 크기, 인지도, 향, 공급의 안정도, 가격수준의 타당성, 식감, 보전성, 산지 브랜드화, 네이밍 등 총 17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한 결과이며, 아르스 멜론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일본 주요 멜론 브랜드 조사

1위

아르스 멜론

머스크 멜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세하고 깊은 그물망 무늬의 외관과 연두색의 과육이 특징이다.



2위

안데스 멜론

일본 최고의 종묘기업인 사카타노타네사가 개발한 품종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가능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3위

퀸시 멜론

오렌지색의 과육이 특징이며, 15~17정도로 농도가 높고 과즙이 많다.



4위

다카미 멜론

높은 당도와 좋은 향으로 인기가 높다.



5위

루피아레드 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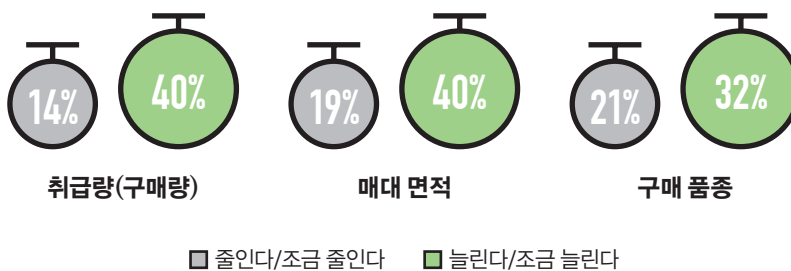
짙은 오렌지색에 15정도의 높은 농도를 자랑한다.



멜론 바이어들의 제품 구매 기준

- 이번에 조사한 17개의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으로, 조사응답자의 91%가 맛을 구매의 우선기준으로 꼽았으며, 2위는 외형, 3위는 크기가 차지했다.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과일인 만큼 맛은 물론, 좋은 외형의 멜론을 찾는 소비자의 심리가 바이어의 판단 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멜론은 매년 생산량이 줄어 유통매장의 희망가격대와 동떨어진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멜론의 인기 덕분에 바이어들은 여전히 멜론 취급량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바이어들의 향후 멜론 구매의사



- 자국 과일의 높은 인기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개발된 과일품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품종 등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

- 일본 과일시장에서 멜론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산 멜론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산 멜론은 대부분 시설재배로 시기상 일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약한 브랜드 인지도는 산지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닌 외식업체의 수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어의 멜론 구매 기준

